

고요한 기다림

유재호 (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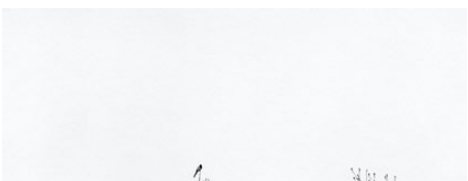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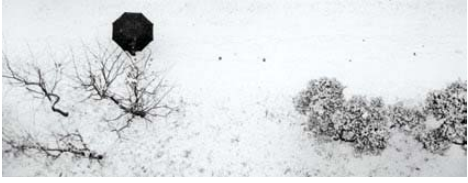
오늘의 세상은 속도경쟁 속으로 빠진 것 같다. 모두 바쁘고 빠르게 살아간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을 돌아볼 여유만 있다면 참 많은 것을 새롭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진은 기다리는 도구인 것 같다. 오랜 시간 사물을 관찰하고 기다리다가 그 사물을 통해 느껴지는 순간을 한 장에 담아내어 시간을 정지시키는 것이 사진이 가진 매력이 라고 생각한다. 도구의 이러한 특성을 생각하고 주변에 보이는 사물들을 기다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촬영을 진행했다. 작업을 하면서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고 그 속의 많은 것을 목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멀리 낯선 곳으로 가야만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조용한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시간을 내서 산책하고 하늘을 한 번 더 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비단 여유로움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고요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위해 시간을 내야하는 것이기도 했다. 너무 바빠서 삶의 주변에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다.(롬 1:20)

무심히 지나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시야를 달리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드러나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이렇게 변화된 시야를 가지고 주변 환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촬영을 해나갔다. 바쁘게 갈 길을 재촉하면 볼 수 없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길가에 자라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 속에 머무는 새 한 마리가 때로는 많은 말들을 건네 왔다.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계절을 느끼다보니 늘 보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의미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진을 통한 목상이 시작되었다.

목상하듯이 촬영을 하면서 최종 결과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고요함과 기다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백을 활용하던 조선시대 회화기법이 잘 맞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당시의 자료를 참고하게 되었다. 사진이라는 기술은 서양에서 들여온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선의 회화적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수묵화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수묵화의



〈고요한 기다림〉 PHOTO BY 유재호



위부터 <출근길>, <목포수와 반석>, <공중에 나는 새도 쉬어갈 곳 있어라> PHOTO BY 유재호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선 회화와 당시의 대표적인 화가들인 김홍도, 신윤복, 정선, 김정희, 조희룡 등의 작업을 참고하게 되었다. 선조들의 작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여백은 정신을 담는 세계였다. 선조들의 그림은 점과 선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각의 프레임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 맞게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화적 표현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프레임 구성은 기존 것 대신 즉자 형태로 정하였고, 수묵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흑백의 농담을 조정하면서 작업하게 되었다. 이렇게 촬영부터 결과물까지 과정을 다져가면서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이후 촬영은 대부분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다. 사진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촬영을 위해서 많이 다니시겠네요"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 작업들은 촬영을 위해서 장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장소에 있게 되어서 촬영한 것들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당시에 살던 아파트가 5층에 있었다.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을 촬영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촬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우산을 들고 출근을 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의 우산이 카메라로 들어왔다. 그렇게 한 컷, 두 컷을 촬영하였다. '출근길'(창 3:17-19)

왜 부모들은 아침이면 출근을 할까? 이유는 너무나 당연했다. 그런데 예멘동산에서 아담은 출근을 했을까? 성경을 보면 그도 일을 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아담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동산에 널려있었고 풍족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먹고 살려면 당연히 일을 해야지!"라고 들 하지만 일은 죄로 말미암은 것같았다.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해 무한 제공되던 음식들이 끊어지고 일을 통해서만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이 명령은 지금까지 온 세상에 지켜지고 있고 알든지 모르든지 인간이라면 이 말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되었다. 전에도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가족들과는 오랜만이였다. 제주도에서 유명하다는 정방폭포로 발걸음을 옮기고 아이들을 촬영하였다. 이윽고 고개를 돌려 폭포를 바라보았다. 거세게 내리치는 폭포의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그 밑에서 떨어지는 물의 압력을 견디고 있는 바위들을 보았다. 연이어 사진 촬영에 몰입했다. 폭포의 물보라에 젖은 카메라 렌즈를 거둬 닦아내며 물줄기와 바위를 담았다. 진경산수화를 생각하며 바위의 질감을 살려 최대한 농담을 표현하기 위해 애쓰며 노출과 셔터속도를 조정했다. '목포수와 반석'(히 10:38,39) 거센 물줄기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세상의 거센 세파를 나는 거슬러 건너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열이 떠내려가고 있는가? 거센 물줄기를 말없이 맞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위가 눈에 들어왔다. 신앙은 저런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나를 무너뜨리려는 간계들의 풍파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는 과연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내 뒤에서 오

는 자녀들에게 바른 지침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늦은 시간 아이들의 외가에 방문하게 되었다. 막 해가 지고 하늘은 아직 빛을 머금고 있었다.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며 제 갈 길을 가고 한 무리는 전신 주에서 줄을 지어 쉬고 있었다. 새들의 움직임을 촬영하다가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 '잠시만 그대로 있어다오.' 마음속으로 부탁을 하면서 촬영을 해나갔다. '공중에 나는 새도 쉬어갈 곳 있어라.'(마 6:26) 새들도 자기 자리가 있고 날다 지치면 어딘가에서 쉬어갈 곳이 있는데 나는 왜 그리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왔던가. 새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는 왜 염려로 나 자신을 해치고 있는지 내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염려가 아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넘어지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표시를 공중에 새겨 주셨다. 새를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늘 보면서 잊지 말라고.



<물풀> PHOTO BY 유재호

집 근처에 호수가 하나 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호수 주변은 풀들로 넘쳐났다. 조용히 호수를 거닐면서 이것저것 카메라에 담고 있을 무렵, 호수가 이전과는 달라 보였다. 호수의 정화를 위해 물을 조금 빼서 수위가 낮아진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뿌리가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이 물이 빠지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래로 내려가 지면에 빠짝누워 카메라를 하늘로 향하면서 풀들을 담았다. 풀의 모습을 더 많이 담기 위해서 광각렌즈를 사용하였다. 역동적인 모습이 보이고 풀들이 자신을 뽐내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들풀'(마 6:30) 당당한 자태가 부러웠다. 들풀 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뽐내는 것이 보기가 좋았다. 난초가 생각났다. 먹의 질은 부분부터 열은 부분까지 한 획에 모두 표현하며 곧게 뻗은 동시에 부드럽게 꺾이는 모습을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면에 바짝 누웠다. 이 풀 한 포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풀은 어찌 그리 당당할까? 내가 힘을 가하면 곧 꺾여 버릴 존재인데 두려움 없이 어찌 저리 서 있을까를 생각하였다.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나는 속으로 되뇌이며 풀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의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강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이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조용히 풀을 바라보며 촬영을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제

는 그곳에 다시 물이 차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아마 내가 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은 다시 물이 빠지지 않는 한 그때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다.

후 작업을 하고 제목을 붙이고 사진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속으로 되뇌인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내용을 작업을 보게 되는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삶이 되고, 삶이 사진에 나타나는 사진이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라하며 오늘도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린다.



유재호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독일 Contemporary Art Ruhr (Essen, 독일)에서 그룹전을, 지난 2012년에는 밀일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그 외에 다수의 전시회를 하였다. 출판물로는 '2007년 포토에세이 양화진 "Here am I" 이 있다.